

우리는 아직도 석굴암을 모르고 있다



불교 사상과 수리적 원리가 빛은 조화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국보 제24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문화재 중 하나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것 같은 자비로운 미소는 한 번 관찰하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 인상적이다. 그러나 제2석굴암 건립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도 석굴암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다.

신라의 왕들은 스스로를 '석가족'이라 부를 만큼 불심이 강했다. 석굴암도 이런 신라인들의 신앙심과 노력의 결실이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석굴 조성의 유래에 대해 두 가지 설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 하나는 마을에서 전해오는 전설인 '향전'이며 다른 하나는 정통적인 절의 역사인 '사중기(寺中記)' 설이다.

<삼국유사> 5권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 조에 나타난 향전에 따르면 한 가난한 집의 대성(大城)이라는 아이가 부잣집 풀팔이로 마련한 밭을 점개 스님에게 보시하고 재상 김문량의 아들로 환생한다. 환생한 대성은 토함산에서 사냥 중 잡은 곰이 꿈에 나타나 위협하자 비원을 세운다. 대성은 또 현세의 양친을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세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세운다.

'사중기'에는 경덕왕 대의 대상(大相) 김대성이 751년에 불국사를 세우기 시작해 해공왕 때를 지나 대광(大廣) 9년 갑인 12월 2일에 대성이 세상을 뜨자 나라에서 이

를 완성했다고 전한다. 김대성은 신라 경덕왕 때 중시(中侍)였던 김문량의 아들 김대정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저서 <토함산 석굴>에서 "상징과 은유 속에 깃들여 있는 진실을 살펴본다면 향전의 이야기와 사중기의 기록 둘 다 옳다고 생각된다. 절을 창건하게 된 인연은 인과응보와 불상생의 자비, 유가유식사상에 대한 갖가지 윤색을 감안한다면 향전에 있는 대로 나라의 융성과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유가유식사상에 의거해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라인의 불심 반영 지고지순한 아름다움

본존불 중심, 39체 불상 조각

토함산 중턱에 조성된 석굴암은 전설, 통로, 주실로 이루어졌다. 석굴은 백색 화강암재를 사용했다. 석굴암은 산 아래에서 큰 바위를 정확한 크기로 자른 다음 이것을 석굴이 있는 곳으로 이동, 날장의 돌들이 서로 받쳐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돌글레 쌓아 올렸다. 돌 바깥벽에는 흠을 쌓았으며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진흙을 덮고 돌글레 기와를 얹어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았다.

석굴은 장방형의 전실과 원형의 주실이 통로로 연결돼 있는데 360여 개의 판석으로 원형주실의 궁륭천장 등을 교묘하게 구축했다.

앞의 전실방은 4각형이고 뒤의 본실은 둥근 원형이다. 이런 형식의 석굴을 전방후원(前方後圓)형식이라 부른다. 커다란 판석들을 이용해 전방후원 석조 건축을 조립한 축조공원은 약간의 오차만으로도 허물어질 수 있는 고도의 과학성과 정교한 기하학의 산물이다. 이런 건축 기법은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실의 입면인 원후형은 신라 범종 모양과 흡사한 수미산형으로 둥근 우주를 상징하며 천정개석 역시 중첩된 원들로 구성돼 있다. 끝없이 돌아가는 원과 원의 아름다움이 다시없는 지고지순의 미를 창조하고 있

는 것이다.

내부에는 본존불 석가여래불상을 중심으로 보살상 제자상 금강역사상 천왕상 등 총 39체의 불상을 조각했다. 주실 입구에는 좌우로 8각 석주를 세웠고 이곳을 지나면 평면 원형의 주실로 본존은 중심에서 약간 뒤로 안치돼 있다. 평면방향 전실에는 8부신상이 위치해 있고, 통로 좌우에는 금강역사상, 통로에는 사천왕상이 석굴암을 지키고 있다. 본존 정후면에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있다.

좌우 판석에 부조로 새겨진 팔부중은 본실의 상들보다는 덜 세련됐고 외부 노출이 심해 마멸도 있다. 팔부중은 초월자 아니라 세상을 호위하고 불법을 지키는 신장으로 땅을 뜻하는 방형(方形)에 위치하고 있다.

본실 입구 문 양쪽에는 인왕(金剛力士)이 위치해 있다. 인왕은 역동감 넘치는 힘찬 모습이지만 해학적 느낌이 강하다. 북도에는 사천왕이 좌우 2구씩 배치돼 있는데, 악귀를 짓누르고 있는 당당한 자세와 엄숙함과 위엄이 잘 표현돼 있다.

본불좌상은 위엄과 자비, 엄숙함과 온화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상호는 보는 각도에 따라 위엄 엄숙 활력 당당 자비 등 다양한 표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있다.

사천왕을 지나 본존불 대좌 앞에 서면 좌우로 불자와 금강저를 든 제석과 불자와 정병을 든 범천, 뒤이어 지혜의 잔을 든 문수와 경전을 든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향해 있다.

본존불 뒤편에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아름다운 자세를 하고 있다. 단아한 모습은 어떤 하소연이라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경지를 보여준다.

온화한 모습을 지닌 석굴암 석가여래불상은 동해를 향해 앉아, 얼굴과 어깨를 드러내고 있다. 생경감이 넘치는 자세와 얇은 미소는 자비로운 부처님을 잘 표현하고 있다. 손은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으로 왼손은 선정인(禪定印)을 하고 오른손은 무릎에 걸쳐 검지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 석가모니가 모든 악마의 방해와 유혹을 물리치고 큰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불심이 강했던 신라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석굴암을 짓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같은 대형 불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 최대의 석조 미술품

석굴암의 불상들은 동아시아 최고의 불교 조각으로 손꼽히고 있다. 석가여래상은 원숙한 조법과 사실적 표현이 으뜸이며 십일면관음보살상은 화려함, 인왕상은 용맹함, 나한상들의 개성이 각기 생동감 있게 표현됐다. 특히 온화한 모습의 석가여래불은 굽다

양식으로 조성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미를 대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굴암이 조영계획에 있어서도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12월에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됐다. 국보 제24호로도 지정돼 있다.

석굴암의 감실은 지상계와 천상계의 중간을 뜻한다. 불교적으로도 보살이 여래와 중생의 중간자적인 존재라는 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미륵보살상의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손목, 오른쪽 무릎은 안정감을 준다. 또한 세운 무릎과 비스듬히 엮은 팔, 숙인 얼굴의 곡선은 변화와 운동감을 느끼게 한다. 십일면관음보살상의 자세도 보는 이들은 화려함과 동시에 완숙미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신라의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인데, 석굴암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불교사상과 수리적 원리를 토대로 뛰어난 조화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석굴암이 인위적 기교 없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표정 세계 유례없는 독특한 건축기법

이 생명력이 넘치며 탁월한 예술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신라 문무왕은 육진왜병(欲鎭倭兵)이라고 동해의 호국대룡(護國大龍)이 되어 저승에서까지 국가수호의 집념을 잃지 않았다. 이런 호국사상은 해동명승을 비롯해 감은사(感恩寺)나 이견대(利見臺) 그리고 석굴암과 동해구여의 관계에서 같은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점은 석굴암의 창건주인 경덕왕의 선왕(先王), 즉 효성왕(孝成王) 역시 화장 후 산골(骸骨)된 곳이 동해구여서, 석굴암 대불의 시각(視角)이 동남동 방향으로 동해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다.

그것은 곧 신라인의 믿음과 호국정신의 요람으로서 국찰(國刹)도 같았던 석굴암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켜 주는 예다. 이는 석굴암은 신앙적 측면은 물론, 조형적 면까지 신라 미술 최고이며 민족 최대의 석조미술품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다.

문명대 소장은 "동해에 떠오른 일출이 석굴대불(石窟大佛)을 비추기라도 하면 환희의 불세계, 정토의 세계가 석굴 가득히 퍼져 사바세계로 넘쳐 흐르는 이 토함산석굴의 위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일제에 의한 훼손과 재정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석굴암의 석실 법당 전체를 해체해 반출할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당시 정세와 맞물리면서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1912년 11월 8일 초대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석굴암을 탐방한 뒤 보수공사 논의가 급진전돼 1913년 10월부터 1915년 8월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의 규모는 석실법당 전체를 해체해 파손된 석재들을 새로 제작해 재조립하는 등 신축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재조립 과정에서 석굴 바깥을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덮어 버리고 말았다. 결국 1차 공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석굴에는 물이 새기 시작했다.

1917년 이뤄진 2차 공사 때 석굴암 주지는 청원서에서 "석굴암 내 누수로 인해 점차 불상들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서 이대로 두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1920~1923년에 이뤄진 3차 공사는 2차 때 누수를 잡지 못해 다시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일본은 1927년에 누수로 인한 형태와 오염물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증기 보일러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는 석굴암의

발굴 후 일본 반출 시도 하면서 석굴암 과학성 이해 못해 훼손

향후 보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일본은 또 석굴암의 재조립 단계에서 석굴 외곽을 감싸고 있던 잡석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석실 외곽을 시멘트로 시공해 실내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 3차 공사 후에도 이슬이 맺히는 현상은 계속됐다.

해방 후 1961년, 문화재관리국 주도하에 우리 정부의 복원 공사가 시작된다. 4년여의 걸친 공사에서 정부는 전실전각 설치, 배수구 설치, 전실 구조 복원 등을 실시한다.

전실전각은 악천후와 짐승 등의 침탈을 막고 관람객으로부터 석굴암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됐다. 콘크리트 두껍은 수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 충격으로 대벽 조각상들이 훼손될 우려가 컸다. 결국 철거는 시멘트 자체의 물리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로 유보된다.

지하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구가 설치됐고, 전실 구조를 원래대로 복원했다. 석굴암 입구의 팔부신중 가운데 맨 앞자리의 좌우 각 1상이 금강역사와 마주 배치돼 있었던 것을 곧바로 폐서 다른 신중상과 나란하도록 배치했다. 이와 함께 수광전, 3층 석탑, 요사 등의 부속 건물과 유적도 보수를 실시했다.

박기범 기자

(주)에스컴
마하연투어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성지순례

- 8월 30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690,000원
- 9월 16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6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205,400, 가이드, 기사 팀 \$50

※ 단체문의

- 지정도량 구좌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9월 16일 출발확정

9월 문의

7월, 8월 출발 가능

-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599,000원 부터 -
- ☞ 캄보디아 씨엠립 (양코르왓) 특급 5일. 649,000원 부터 -
-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990,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컴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성심스님과 함께 보는 불교명상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 말씀 - 밖에서 찾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작은 마음에서 큰마음으로 바뀌어 집니다. 또한 마음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며 그리고 행복하기도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독송하면서 막혔던 부분을 쉽게 풀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라도 펴서 읽으면 명상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행복은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이치를자세히 밝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불교공부가 재밌어지며 아마도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괴로움이 진실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변화에 상관없이 존재해야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만 해도 고통은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고통과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의 감정은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상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본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